

# 전북, 쌀 산업시책 전국 최우수상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시책 평가에서... 2004년 이후 12년만에 정상 탈환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이 전국 최고봉에 등극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은 2004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1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농산시책 평가 시상은 정부에서 1996년부터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 정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역사성과 상징성 등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상으로 여겨져 왔다.

평가목적은 전국 8개 도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우수기관과 경영체 등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발·포상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양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쌀 안정 생산량 확보,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 쌀 경영안정 노력, 동계작물 재배확대 노력, 쌀 수급 안정 노력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도는 논 타작물 전환실적, 10a 당 쌀 생산량, 벚жит 환원 노력도, 벼 공동육묘 비율, 공동방제 실적,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 맥류 답리작 파종 면적, 쌀 적정생산운동 노력의 적극성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쌀 안정생산량 확보에서 논 타작물 전환면적 2,583ha로 목표 대비 113%를 달성하고, 10a당 쌀 생산량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도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어느 점포를 방문, 점포별 법정 소방시설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확인, 긴급상황 발생 시 가판대 설치 등 소방통로 점유·장애물 신속 이동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568kg/10a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쌀 안정생산기반 조성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벚жит환원 3만9,794ha로 '상'을 받았고, 벼 재해보험은 가입비율 53%로 전국 1위 등 고득점을 획득했다.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삼락농정 위원회 식량분과와 전북도 특수시책

인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 식량작물 생산대책 TF를 운영하고 농업인 교육, 언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북도는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더욱 더 발굴하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삼락농정을 펼쳐 경쟁력 있는

쌀산업을 육성하고 농민이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품질관리관은 "이번 수상은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농정철학이자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추진한 결과물로, 삼락에 수상의 기쁨까지 더해져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AI 발생 정읍 고부 예방적 살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14만마리가 넘는 가금류에 대해 추가 예방적 살처분을 벌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의심축이 발생한 정읍시 고부면의 한 육용 오리농가를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다.

AI의심축이 발생한 이 농가는 전날 약 200마리의 오리가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고, 검사를 벌인결과 H5형원이 검출된 상태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등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전 이 농가에서 반경 3km 내 있는 오리농가 4곳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긴급으로 열고 AI의심축이 발생한 농가 보호지역에 있는 8개 가금류 농가 14만2000마리(오리 11만4000마리, 닭 2만8000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보호지역 내 가금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면서 "가금류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해야 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오늘 11시 기준 '매우나쁨'

올들어 세번째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의보 발령기준을 초과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11시를 기준으로 동시에 발령됐다고 밝혔다.

발령시각 기준으로 도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중 4단계인 '매우나

쁨' 단계에 해당된다.

초미세먼지(PM2.5, 2.5μm이하)와 미세먼지(PM10, 10μm이하)는 입자의 크기로 구분하며,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전신이나 폐질환의 유발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도,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노조, 안될 말

### 전북공무원노조, 파견 취지와 순기능 살려 더욱 확대돼야

전북도가 파견 중인 공무원들의 전원복귀 방침을 세우자 전북공무원노조 동조함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5일 노조는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능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파견자를 전원복귀 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 오히려 파견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도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는 파견자 전원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 출연기관 등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3급 2명·4급 8명, 나머지는 5급 이하이다.

도는 파견 중인 40명의 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인 10명은 전원 복귀시될 예정이며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 등을 파악한 뒤 복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파견제도와

관련해 일부 도의원과 언론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제도의 부실운영 문제, 파견의 자율성 결여, 성과 미흡 등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도 소속 출연기관 파견자 전원복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일부 도의원의 정치적·지외적 해석에 따라 전면복귀를 고려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고, 파견기관의 성과 진단, 업무성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차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바람직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파견제도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가 도정운영의 차질을 감수하면서 순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확대

### 23일까지 시군별 2 품목 추천받아 최종 결정기로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고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대상품목을 재배면적, 수확 농가수 등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품목 추천으로 최종 결정(선정)하기로 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보전하는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하반기 사업 시행에 따라 14개 시군에서 팔고루 재배되고 있는 가을무, 가을배추를 우선 선정 추진했다.

그러나 시군에서 중점 재배되고 있는 품목 선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과 지난 8월 11일 개최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시군별 2개 품목을 추천, 도에서 시군별 지원대상 품목을 결정하기로 심의의 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종합적이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별 품목 추천 방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품목을 오는 23일까지 시군에서 품목을 추천받아 재배면적, 수확 농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선정(결정)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농업농촌발전심의회 등)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대상품목을 추천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노지의 원예농산물(노지 채소) 중에서 생산비(농촌진흥청)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객관적 정부 공인통계가 확인되고 시

장가격(전국 주요도매시장)이 발표되는 품목이다.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 조직(지역농협, 일반법인)에서 직접 매취해 시장상황에 맞게 연중 출하되는 품목과 정부 및 시군 사업 등을 통해 가격차액을 보전받는 품목 등은 제외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별 다양한 품목 선정을 통해 대상품목 확대와 다수의 농가 사업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 간 수급상황과 가격을 분석·점검하는 등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희망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리스트**

◇전북 고창군 부안면

- ▲지동마을 200,000
- ▲선양마을 100,000
- ▲창내마을 60,000
- ▲석암마을 220,000
- ▲인촌마을 270,000
- ▲반계마을 140,000
- ▲구현마을 130,000

계 1,120,0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